

2021 서울드라마어워즈 대상 '아이를 찾습니다' 박혁권

“연기인생 토닥거려준 작품”

조용원 PD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내가 유괴범이 된 기분이에요. 그것도 아주 무거운.”

잃어버린 아이를 11년 만에 되찾은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없이 무겁다. 그를 덮쳐온 감정은 행복보다는 절망에 가까웠다.

‘2021 서울드라마어워즈’ 대상을 거머쥔 JTBC 단막극 ‘아이를 찾습니다’의 한 장면이다. 이 작품은 유괴됐던 아이를 다시 만난 부모가 마주한 현실을 섬세한 연출과 진정성 있는 연기로 그려냈다는 평을 받으며 3관왕을 차지했다.

다른 두 트로피의 주인공인 배우 박혁권(사진·남자 연기자상)과 조용원 PD(연출상)를 최근 서울 마포구 삼암동에서 만났다.

박혁권은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올림픽으로 치면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출전했다가 금메달을 딴 느낌”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조미료를 많이 치지 않은 느낌의 작품이었어요. 사실 연출이나 연기할 때 꾸미지 않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용기 있는 선택에 좋은 점수를 받았나 싶어요.”

‘아이를 찾습니다’를 통해 성공적으로 데뷔한 조 PD는 “첫 연출작인데 너무 큰 상을 받아서 어안이 벙벙하다”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차기작은 만들

지 못할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이 작품이 ‘운명’ 같았다고 회상했다. 드라마의 원작인 김영하 작가의 동명 단편소설을 처음 읽자마자 ‘이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2017년에는 판권을 사들이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비로소 ‘아이를 찾습니다’ 판권을 손에 넣었고, 올해 3월 드라마가 방송됐다.

“뒤통수를 계속 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이를 찾는 것만 나올 줄 알았는데 아이가 돌아오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가짜 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이게 누군가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혹은 주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았어요.”

극 중 아이의 아버지인 윤석을 연기한 박혁권에 대해서는 “텍스트로만 봤던 인물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며 “윤석이 만약 살아있다면 저렇게 하겠구나 싶도록 표현해주셔서 시청자들도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극찬했다.

이번 작품을 통해 아이를 유괴당한 아버지의 슬픔부터 분노, 체념까지 다양한 감정선을 깊이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은 박혁권은 “글을 읽고 처

음 받았던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다”며 “원작과 차별화하기 위해 뭔가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동일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없기 때문에 연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실종아동 가족과 같은 당사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만들어진 ‘아이를 찾습니다’를 통해 두 사람도 응원과 위로를 받았다.

조용원 PD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고 생각하며 만들었는데 아무도 공감하지 않을까 봐 걱정도 많았다”며 “그런데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에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박혁권은 “저도 마찬가지로”라고 공감을 표했다.

“연기라는 게 어찌 됐든 대중예술이잖아요. 큰 흥행을 바라진 않아도 너무 극소수의 층만 찾아주면 생활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보니 연기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작품은 그런 제게 ‘나쁘지 않아. 계속해’라는 하나의 토닥거림이 됐죠. 그래도 지금까지 잘못 오지는 않았구나 싶어요. (웃음)”

/연합뉴스

“1년만입니다”



BTS 온라인 콘서트 197개국 관람

내달말~12월초 美 LA서 오프라인 콘서트

그룹 방탄소년단이 24일 오후 열린 온라인 콘서트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를 전 세계 197개국에서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25일 밝혔다.

빅히트뮤직은 “방탄소년단은 전날 곡별 콘셉트와 메시지에 따라 5개의 독립적인 섹션으로 공연을 구성했고, 무대 세트도 각기 다른 분위기로 꾸몄다”며 이같이 전했다.

빅히트뮤직은 이 콘서트 좌석을 미처 구하지 못한 팬들을 위해 전문 공연장 ‘유투브 시어터’에서 실시간 생중계 유료 오프라인 이벤트도 마련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대규모인 길이 50m, 높이 20m 크기의 LED 화면이 설치됐다. 가사 그래픽과 중계 효과 등이 결합한 화면을 온라인 송출 화면에서도 구현하는 신기술도 적용됐다.

방탄소년단은 다음 달 27~28일과 12월 1~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피아 스타디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오프라인 콘서트를 연다.

전날 콘서트에서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사상 최



‘베놈 2’ 2주째 박스오피스 정상

누적 관객 164만9000명...SF 대작 ‘듄’ 2위

마블의 빌런 히어로 ‘베놈’이 새로 개봉한 SF 대작 ‘듄’을 누르고 2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 자리를 지켰다.

25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베놈 2: 렛 데이 비 카니지’는 지난 주말 사흘(22~24일) 동안 34만3000여명(매출액 점유율 45.8%)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3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은 164만9000여명이다.

드니 빌뇌브 감독의 야심작인 ‘듄’은 같은 기간 27만5000여명(39.5%)의 관객으로 2위에 올랐다. 20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은 38만3000여명이다. 대니얼 크레이그의 007 시리즈 마지막 출연작인 ‘노 타임 투 다이’와 리들리 스콧 감독의 신작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가 각각 2만명대 관객으로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주말 동안 극장을 찾은 총관객 수는 전주(96만 6000여명)보다 20% 이상 줄어든 74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애플TV+ 시리즈 ‘Dr 브레인’, 제2의 오징어게임 될까

첫 한국 콘텐츠 내달 4일 국내 서비스...한국 웹툰 원작

다음달 4일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애플TV+가 이선균 주연의 스릴러 시리즈 ‘Dr 브레인’을 첫 한국 콘텐츠로 선보인다.

애플은 25일 오리지널 콘텐츠 전용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TV+의 국내 출시 일정과 함께 한국 구독자들이 만나볼 수 있는 작품 라인업을 공개했다.

출시 당일 공개되는 ‘Dr 브레인’은 동명의 한국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뇌에 담긴 의식과 기억에 접속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집념을 가진 뇌과학자의 여정을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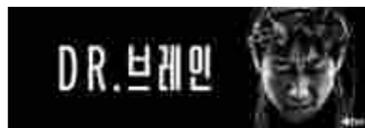
가족이 의문의 사건에 휘말리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아내를 포함한 사친 관련자들의 뇌에 접속해 기억을 모으는 이야기다.

‘장화, 홍련’,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악마를 보았다’ 등으로 한국 영화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장르에 도전해온 김지운 감독이 처음으로 만드는 드라마다.

애플TV+는 ‘Dr 브레인’을 소개하며 “새로운 SF 스릴러 장르의 작품”이라고 언급했다.

영화 ‘기생충’으로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이선균이 주연을 맡아 ‘오징어 게임’으로 높아진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공개된 라인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애플TV+는 윤여정과 이민호가 주인공을 맡은 드라마 ‘파친코’도 제작하고 있다.

파친코는 4대에 걸친 한국인 이민 가족의 이야기로 재미교포 이민진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한국어·일본어·영어 3개 국어로 제작되며, 세 나라의 역사적 연대기를 함께 다룬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